

“특정인에 모든책임 전가 안돼” 靑, 부실 인사검증 책임 회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인사 보류
농지법 위반 의혹 靑 김한규 등에
“지적·비판, 겸허하게 듣고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靑 인사시스템 돌이켜봐야” 지적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논란이 거듭됨에도 청와대가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한규 정부비서관 등이다. 특히 박인호 공군총장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한 차례 보류됐다. 임명 직전 박 총장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군 안팎에서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가 한 차례 보류된 데 대해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부 사건 관련

투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인사 보류에 대해 “인사 검증과 관련,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인사 문제 관련 책임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박 총장 임명 당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박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이어 환담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

을 맡게 돼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공군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환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환담에서 대통령은 공군총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 별도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선이 늦어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

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한규 정부비서관,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연이은 부실 인사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두고도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일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자 경질론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사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후보 선정 과정이 인사수석, 선택된 사람에 대한 검증 및 검증

결과와 능력을 잘 가능해 대통령께 추천하는 판단의 영역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거둬진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 (부실)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에 “많은 비판을 듣고 있고,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조한 ‘도덕성·정책 검증을 분리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부탄캔 파열방지 기능 장착 의무화

업체 설비투자 고려 2023년 시행
부탄캔 사고예방, 부상방지 등 기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소비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화 시행시기는 부탄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열방지 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다.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2013년 한국교통대학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 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기존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 현재 파열방지 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 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용기의 파열방지 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 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부탄캔 외부 표시사항은 5월부터 시행하며,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두레생협·아이쿱·한살림이 2일 ESG 경영실천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레생협 김영향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 /aT

aT, 3대 생활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농산물 공급 등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아이쿱, 한살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친환경 사회적 가치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ESG 경영실천을 위해 aT는 친환경 포장재를 위한 협력 재원을

지원하고, 두레생협은 비닐포장 대신 종이포장재 사용, 아이쿱은 친환경 종이팩 생수 보급, 한살림은 재활용 보냉백 제작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aT 김춘진 사장은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 생활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와디즈 3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펀딩 취소불가 조항 등 스스로 시정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 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고, 와디즈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와디즈는 중

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서포터(투자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고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워드(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번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출신 대상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7월 5일부터 7월 23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이다. 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가족단위 4대강 생태탐험 행사

‘성인 보호자+초등학생’ 무료 진행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들과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생태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강 생태탐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단위 4대강의 생태환경을 체험하면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성과와 가능성

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환경 전문가가 설명하는 동식물 이야기, 모래톱·수변식물·철새 관찰, 강변길 걷기, 친환경 정수시설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유역 순으로 1~2주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운영한다.

성인 보호자가 초등학생과 함께 한 가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